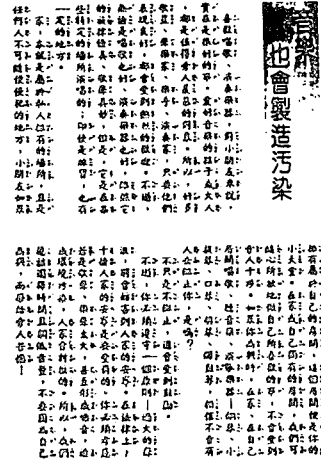


# 만화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킨다

대만은 자국의 「環境保全」에 대한 정책을 「行政院環境保護署」(우리나라의 환경청에 해당)가 담당하고 있다. 다음의 「環保漫畫手冊」은 同國의 環境保護署가 발행한 것을 게재한다. 〈편집자註〉



## 음악도 오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래부르기, 악기연주하기를 좋아하는것은 어린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제로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음악을 애호하는 어린이나 혹은 성인들은 모두 주위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많은 가수, 성악가, 연주가들은 그들의 훌륭한 재능을 표현하기만 하면 모두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막론하고 비록 악기의 선율이 아름답고 가수의 목소리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종의 특정한 장소에서 연주하거나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설사 연습을 하더라도 역시 일정한 장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은 본래 개인을 포용해주는 장소이며 또한 어떠한 사람도 맘대로 침범할 수 없는곳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방에 있다면 그 방은 곧 여러분의 작은 천당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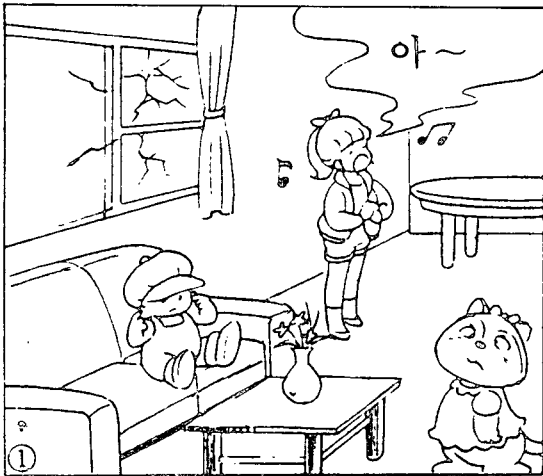
집이나 혹은 자기가 혼자쓰는 방에서 우리들은 마음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주위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쁠때 집에서, 혹은 자기의 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피아노, 아코디언, 하모니카, 호궁(중국악기)정과 북등의 악기를 연주하면 아마도 여러분을 제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그렇죠?

제지를 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더욱더 격려를 해 주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의 원칙 즉 지나친 목소리가 아마도 다른 사람의 안녕을 해치는것은 벌을 받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소리가 너무 크면 도리어 소음이 되어 환경오염을 야기하게 되고 남에게 원성듣는다는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시간과 음량을 잘 조절하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남에게 고충을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제멋대로 소음을 야기시키지 마세요

